



日本の文学

# 일본의 문학

22467934 이가람



# 목차

01 일본문예의 특징

02 시기별 특징 上代文學~近代文學

03 만요슈와 고킨와카슈 万葉集 | 古今和歌集

04 일기·기행·수필 日記·紀行·隨筆

05 모노가타리 物語

06 소설 小説

01

# 일본문예의 특징

일본문예는 일본 고유의 본질과 외국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변화된 성질이 있고, 이들이 결합해 '일본문예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01

단편성의 지향



① 詩의 단편성

일본의 하이쿠(俳句, 俳諧の連句)는  
5·7·5의 3句 17음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

② 설화, 장편소설의 단편성

02

대립성의 결여



① 구성면에서의 대립성 결여

② 자연과 인간과의 대립성 결여

③ 신분·계급을 초월한 장르의 발전

④ 개인과 집단과의 협조현상

03

작조(作調, tone)의  
주정성 및 내향성



고요하고 쓸쓸함을 의미하는「さび」

한랭을 의미하는「ひえ」

간소와 검소를 의미하는「わび」

# 일본 문학의 시기별 특징

일본 문학의 시기별 특징은 역사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지닌다.



03

# 시가

---

01 만요슈

02 고킨와카슈

03 신코킨와카슈

04 하이카이

05 센류

06 시



# 만요슈 『万葉集』

만요가나(万葉仮名)의 가체(歌体)와 형식 및 가수(歌數)

- 일본의 가장 오래된 와카집, 8세기 말 경 성립
- 천황을 비롯한 귀족들이 다수, 농민이나 천민 등 각계각층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
- 전 20권, 4500여수 수록
- 한자의 음과 훈을 적당히 혼용한 만요가나(万葉仮名)로 표기함.

가체	형식 (음수율)	가수
단카 (短歌)	5 · 7 · 5 · 7 · 7	약 4200여수
조카 (長歌)	5 · 7 · 5 · 7 · 5 · 7 ... · 5 · 7 · 7	약 260여수
세도카 (旋頭歌)	5 · 7 · 7 · 5 · 7 · 7	약 60여수
붓소쿠세키카 (仏足石歌)	5 · 7 · 5 · 7 · 7 · 7	1수
렌가 (短連歌)	5 · 7 · 5 · 7 · 7	1수

# 만요슈 『万葉集』

만요슈에 수록된 가요(歌謠)의 시기별 특징

## 一期

대표적인 가인(歌人)

조메이천황(舒明天皇), 덴지천황(天智天皇), 아리마노미코(有間皇子) 등

## 발생기

大化改新～壬申の乱  
(~672년)

- 만요시대의 여명기
- 개성적인 와카의 발생

わたつみ とよはたくも いりひ こよひ つくよ  
海神の 豊旗雲に 入日さし 今夜の月夜 さやけかりこそ。(卷一、天智天皇)

해신의 자태처럼 펄럭이는 구름에 석양이 비치니 오늘밤 달빛 더할 나위 없겠네.

# 만요슈 『万葉集』

만요슈에 수록된 가요(歌謠)의 시기별 특징

## 二期

대표적인 가인(歌人)

가키노모토 히토마로(柿本人麻呂), 지토천황(持統天皇), 오쿠노히메미코(大伯皇女), 오쓰노미코(大津皇女) 등

## 확립기

壬申の乱 ~ 奈良朝 以前  
(672년 ~ 710년)

- 특히 웅대한 조카가 널리 퍼짐
- 표현기법의 획기적 발전

ひむがし の 東の野にかぎろひの 立つ見えて かへり見すれば 月傾きぬ。(柿本人麻呂)

동쪽 들판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여, 뒤돌아보니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 가네.



# 만요슈 『万葉集』

만요슈에 수록된 가요(歌謠)의 시기별 특징

三期

대표적인 가인(歌人)

야마베노아카히토(山部赤人), 오토모노타비토(大伴旅人), 야마노우에노오쿠라(山上憶良) 등

성숙기

奈良朝 前期  
(710년 ~ 733년)

- 세련되고 개성적인 가인이 배출됨

しるしなき <sup>おも</sup>ものを思はずは <sup>さけ</sup>ひとつきのにごれる酒を のむべくあるらし。  
(大伴旅人)

쓸데없는 생각은 해서 무엇하랴, 차라리 탁주 한 사발 들이키는 것이 낫겠네.

# 만요슈 『万葉集』

만요슈에 수록된 가요(歌謠)의 시기별 특징

## 四期

대표적인 가인(歌人)

오토모노야카모치(大伴家持), 가사노이라쓰메(笠女郎), 사노노치가미노오토메(狭野茅上娘子) 등

쇠퇴기

奈良朝 中期  
(734년 ~ 759년)

- 감상적이고 우아한 가풍 유행
- 이지적·기교적 와카가 많아 짐.
- 만요풍~고킨풍으로서의 이행기

はる の かすみ                      かな                      ゆふかげ                      な  
春の野に 霞たなびき うら悲し この夕影に うぐひす鳴くも。(大伴家持)

봄 들판에 안개 드리워지니 왠지 서글프다. 이 저녁 석양에 휘파람새 부는구나.

あたら                      とし                      はじ                      はつはる                      けふ                      よごと  
新しき 年の初めの 初春の 今日降る雪の いやしけ吉事。(大伴家持)

새해의 시작인 신년, 오늘 내리는 눈처럼 좋은 일만 쌓여라.

# 만요슈 『万葉集』

아즈마우타(東歌)와 사키모리우타(防人歌)

## 아즈마우타 (東歌)

- 아즈마지방(東国) 사람들의 연애나 노동을 노래함.

<sup>ふじ</sup> <sup>ね</sup> <sup>とほなが</sup> <sup>やまぢ</sup>  
 富士の嶺の いや遠長き 山路をも  
<sup>いも</sup>  
 妹がりとへば けこよばず来ぬ。

후지산 봉우리의 머나먼 산길이라도 그댈 만나려고 가뿐히 왔노라.

## 사키모리우타 (防人歌)

- 규슈(九州) 북방의 경비로 징병된 병사나 가족들의 이별과 망향의 노래

<sup>ちちはは</sup> <sup>かしら</sup> <sup>な</sup> <sup>さ</sup>  
 父母が 頭かい撫で 幸くあれて  
<sup>いひし</sup> <sup>ことば</sup> <sup>わす</sup>  
 いひし言葉ぜ 忘れかねつる。

부모님께서 머리 쓰다듬으며 몸조심하라 이르신 말씀 잊을 수 없네.

# 고킨와카슈 『古今和歌集』

고킨와카슈의 특징

01

다이고천황의 칙명으로 편찬된 최초의 조쿠센와카슈

02

전 20권, 약 1,100수 수록  
조카 5수와 세도카 4수를 제외하면 모두 단카로 구성됨.

03

춘하추동, 축하, 이별, 여행, 사물의 이름, 사랑, 애상, 잡가와 잡체  
등으로 세분된 부다테로 구성됨.

のべ いえ うぐひす な こへ あさ あさ  
野辺ちかく 家あしせれば 鶯の 鳴くなる聲は 朝な朝なきく。

들판 근처에 집을 지으니 아침마다 휘파람새 울음소리 들리네. (春上, 미상)

さつき はなたちばな か むかしひと そで か  
五月まつ 花橘の 香をかけば 昔の人の 袖の香ぞする。

음력 오월을 기다리는 홍굴꽃 향내 맡으니 옛 연인의 소매 향낭의 향기가 나는구나. (夏, 미상)

は なが みなと くないふか なみ た  
もみぢ葉の 流れて止まる 水門には 紅深き 波や立つらむ。

단풍잎이 흘러가다 멈춘 포구에는 진홍색 물결이 일렁이네. (秋下, 素性)

やまさと ふゆひとめくさ か  
山里は 冬をさびしさ まさりける 人目も草も 枯れぬと思えば。

겨울 산골은 적막함만 더해가네, 찾아오는 이도 없고 풀들도 말라버릴 것을 생각하니  
(冬, 源宗子)



# 신코킨와카슈

新古今和歌集

01

고토바인의 칙명에 따라 편찬된 칙찬집, 전 20권에 약 1980수

02

중고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작품집,  
와카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상징적 여정과 유엔의 세계를 드러냄.

03

'조코토바, 엔고, 가케코토바, 혼카도리, 쇼쿠기레, 산쿠기레,  
다이겐도메' 등의 표현과 기교가 중시

04

구성 | 마나조, 가나조

05

베열 |  
춘, 하, 추, 동, 축하, 애상, 이별, 여행, 사랑, 잡가, 진기, 불교 순

06

신코킨와카슈의 가풍은 정치적으로 무력해진 귀족들이 와카의 미적 세계에 열중한 결과, 환상적인 요염미와 독특한 가경을 수립.



# 하이카이

俳諧

01

해학이 깃든 소박함을 추구, 서민들에게 널리 보급됨.

02

계절을 상징하는 '기고', '기다이'와 강한 여운을 남기는 '기레지'

03

데이몬 하이카이, 단린 하이카이, 쇼몬 하이카이, 덴메이 하이카이

古池や! / 蛙飛び込む / 水の音  
오래된 연못이여! / 개구리 뛰어드는 / 물소리

や | 기레지 (切字)

かわず (蛙) | 기고 (季語)

봄(春) | 기다이(季題)

05

# 센류

川柳

01

'기고'나 '기레지'와 같은 형식에 탈피한 5 · 7 · 5의 정형시

02

마에쿠즈케의 덴자(점수를 매겨 그 우열을 판정하는 사람)였던 가라이 센류의 이름에서 유래

03

단순한 표현을 구사하면서도, 그 소재를 인간의 생활에서 찾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비속하고 예리한 풍자성을 보임.

04

형식미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본심과 약점, 비속함과 어리석음 등을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는 데서 에도 조닌들의 기질과 부합되어 널리 유행함.

05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어지고 있음.

# 시마자키 도손과 도이 반스이

메이지기 낭만시를 대표하는 시인

	島崎藤村	土井晩翠
본질	서정시인	서사시인
특색	정열적, 관능적	명상적, 관념적
표현	여성적, 서정적	남성적, 한시적
대표시집	『若菜集』 (1897)	『天地有情』 (1899)

# 다카무라 코타로와 하기와라 사쿠타로

구어자유시를 완성한 시인들

	高村光太郎	萩原朔太郎
본질	이상파 시인	상징파 시인
특색	의지적, 사상적	감각적, 환상적
표현	사상중시	음악적
공적	구어자유시의 확립자	구어자유시의 완성자
대표시집	『道程』 (1914)	『月の吠える』 (1917)

# 예술시파 주요 번역 시집

구어자유시를 완성한 시인들

01 | 『新体詩抄』 | 이노우에 데쓰지로 등의 신체시의 소개

02 | 『於母影』 | 모리 오가이 등의 낭만시

03 | 『海潮音』 | 우에다 빈의 상징시

04 | 『珊瑚集』 | 나가이 가후의 탐미파 시

05 | 『月下の一群』 | 호리구치 다이가쿠의 초현실적인 시



04

# 일기 · 기행 · 수필

01 닛키 日記

02 마쿠라노소시 枕草子

03 호조키 方丈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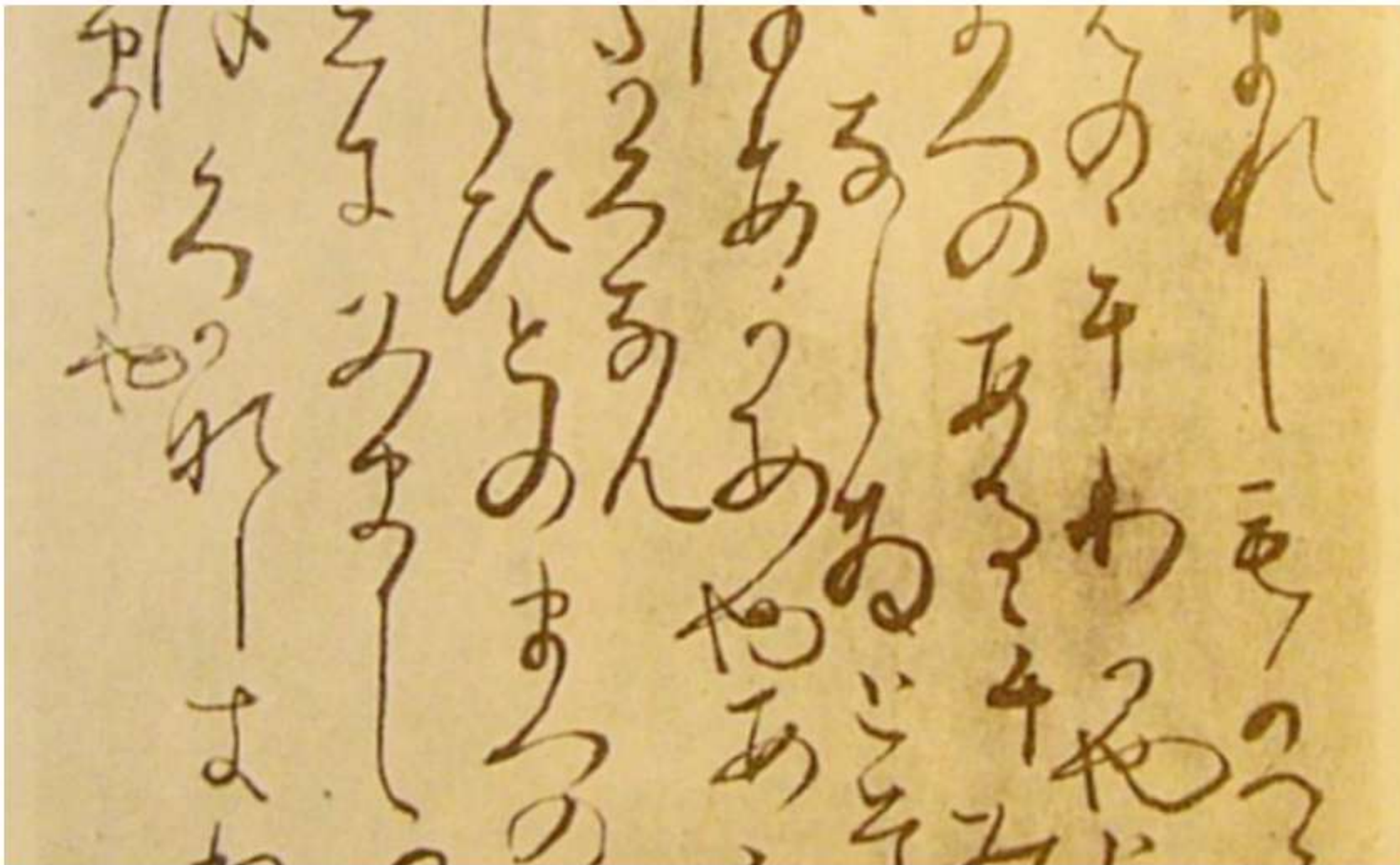
04 쓰레즈레쿠사 徒然草

05 오쿠노호소미치 奥の細道

01

# 도사닛키

가나로 쓰인 자전적인 일기문학의 시작, 천재 가인(歌人) 기노쓰라유키(紀貫之)



01

도사지방의 수령 임기를 마친 기노쓰라유키가 도사를 출발하여 교토에 도착하기까지 55일간의 해로여행을 자세히 기록함.

02

간결하고 호소력 있는 필체가 후세의 여성 일기문학에 크게 영향을 끼침.

03

가나로 쓴 최초의 일기라는 점, 남성이 여성의 입장에서 썼다는 점, 인간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바탕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학적 가치가 부여됨.



01

# 가게로닛키

후지와라노미치쓰나노하하(藤原野道綱母)



01

현존하는 일본최초의 여성일기, 고대의 여성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 20여 년에 대한 고뇌를 일기문학 형식으로 진솔하게 토로함.

02

"세상사의 덧없음을 생각하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심정"으로 글을 쓴 데서 유래함.

03

뒤이어 등향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 일련의 여성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침.



01

# 이즈미시키부닛키

여류 가인(歌人)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



01

이즈미 시키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음.

02

아쓰미치 왕자를 만나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가 될 때까지의 10개월간의 이야기

03

신분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3인칭으로 표현된 증답가를 중심으로 서술, 궁중 여성의 고독한 내면을 엿보이기도 함.



01

# 무라사키시키투닛키

겐지모노가타리의 저자 무라사키 시키투(紫式部)



01

이치조천황의 중국인쇼시를 모실 때의 궁정생활을 상세하게 기록

02

당시 궁녀들의 인물평과 감상 등이 재미있게 표현,  
상류 귀족들의 행동과 의식, 남녀 복장 등을 자세히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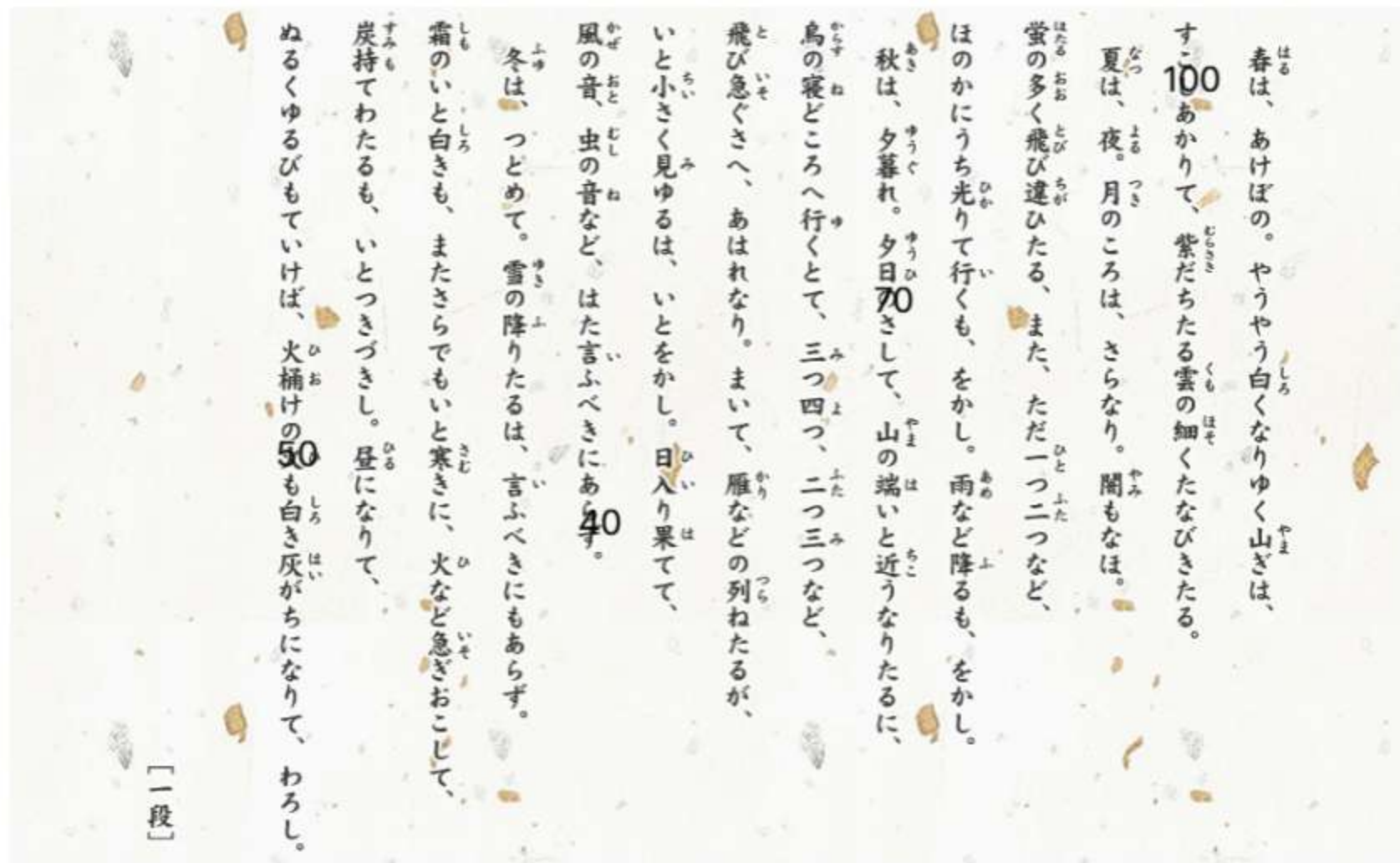
03

작품 말미에 있는 서간문 형식의 글에서 세이 쇼나곤이나  
이즈미 시키투와 같은 당대의 재능있는 여성에 대한 비평도 실려있음.



# 마쿠라노소시

세이 쇼나곤(清少納言)



01 | 귀족계급의 사교생활 등을 예리, 섬세, 명확하게 서사

02 | 300여 장단으로 구성되며, 내용에 따라 유취적장단, 일기적장단, 수상적장단으로 분류

03 | 서두에서 사계절을 소재로 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문체로 묘사

04 | 수필이라는 새로운 문학 양식을 탄생시킴

05 | '오카시(をかし)'라는 미의식

# 세이 쇼나곤과 무라사키 시키부

헤이안 왕조 여류문학의 쌍벽을 이룬 걸출한 여성문인들

	清少納言	紫式部
모신 중궁	이치조천황의 중궁 데이시	이치조천황의 중궁 쇼시
작품	枕草子	源氏物語, 紫式部日記
미의식	をかし	あわれ
문장	간결 · 감각적	우미 · 정서적
성격	명량 · 개방적 · 이지적	정적 · 내향적 · 의지적



03

# 호조키

가모노초메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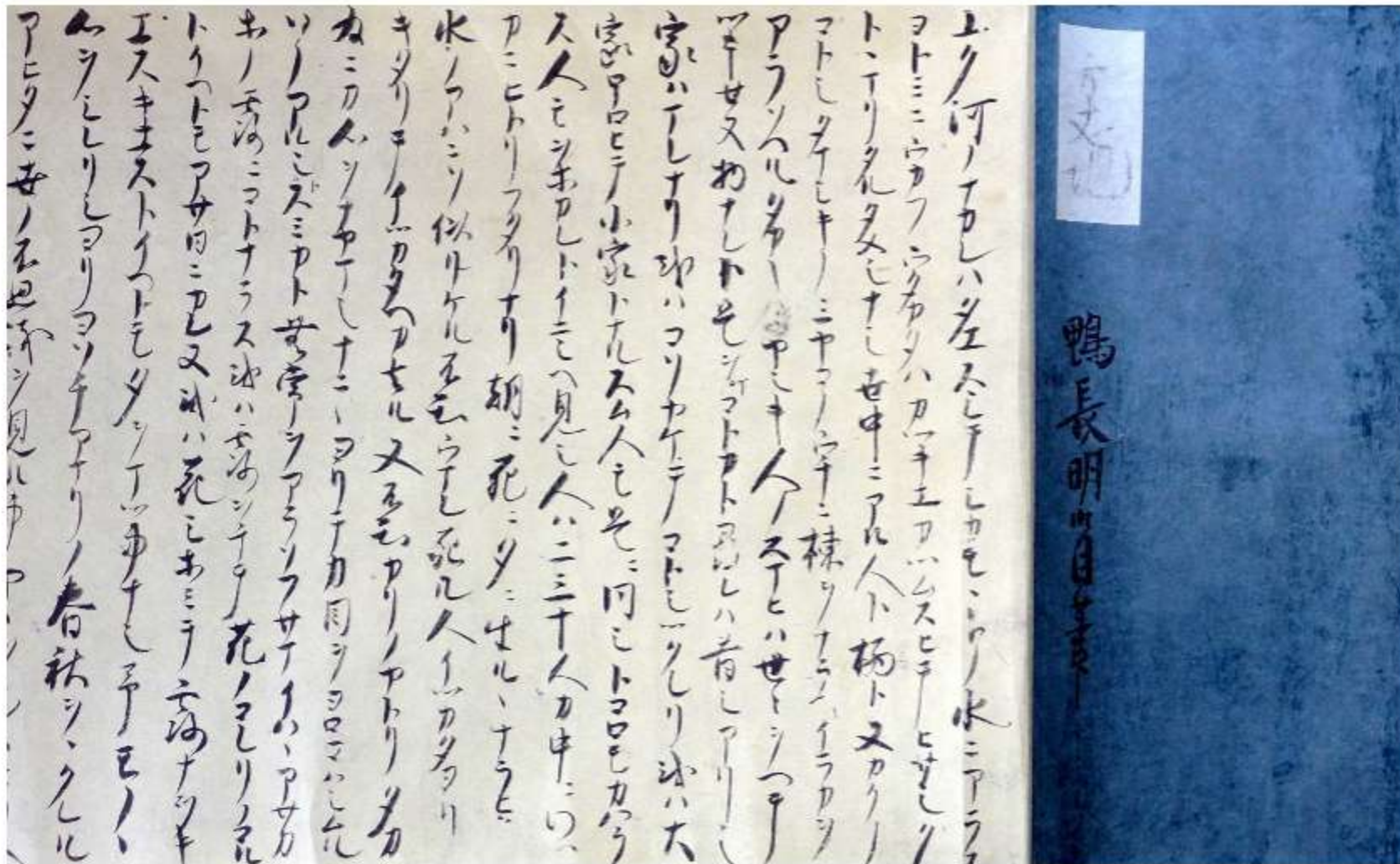
인생 평론서이며 사색서이자 회상록의 성격을 띤.

02

문체는 '와칸콘코분', 간결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문장과 쓰이쿠나 비유에서 높은 격조가 느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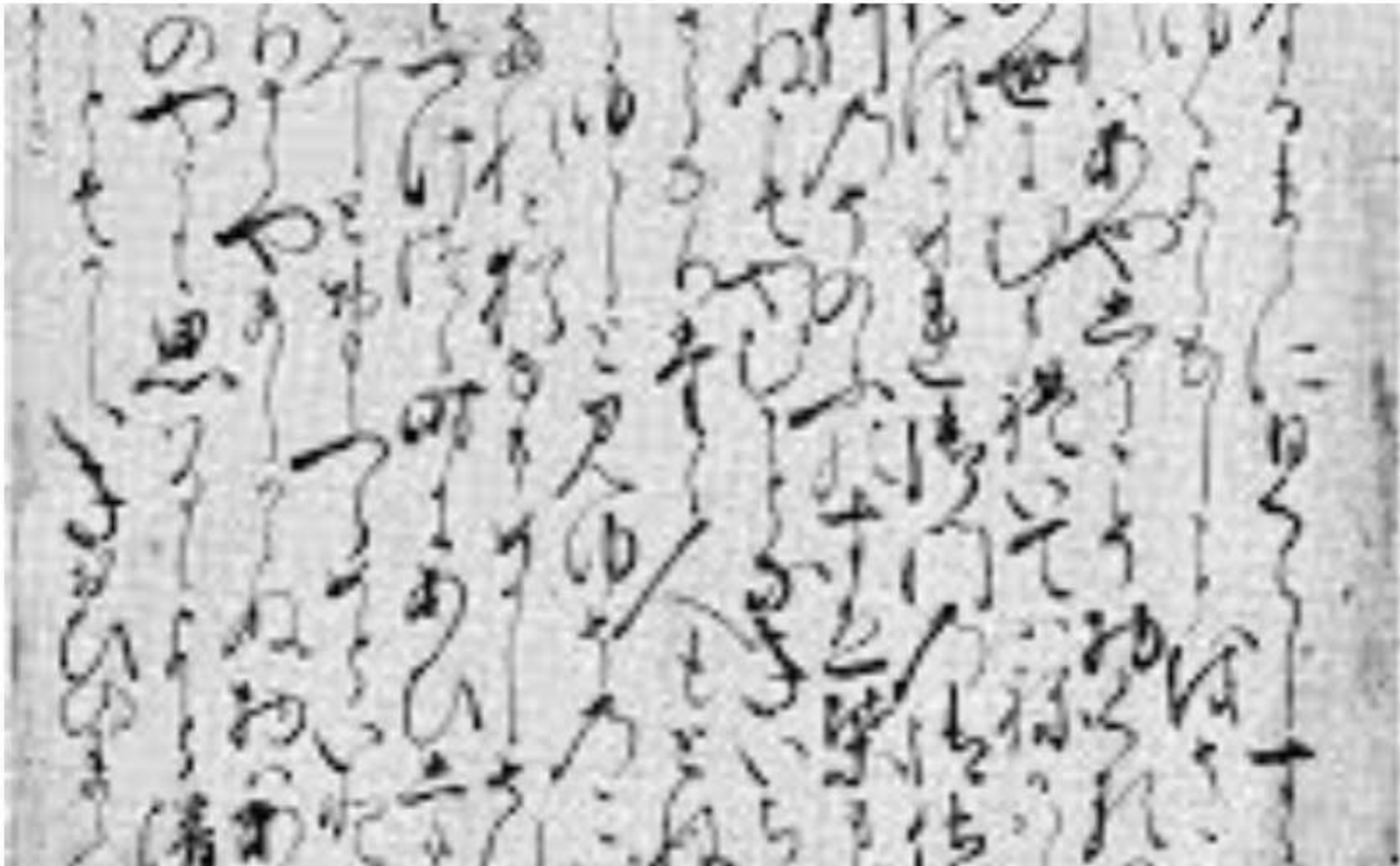
03

작자의 무상관(無常觀)이 잘 드러나 있음.



# 쓰레즈레쿠사

요시다 겐코



01

아무 할 일도 없는 무료함을 뜻하는 'つれづれ'

02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 역시 무상관(無常觀)

03

호조키와 더불어 중세의 은자문학을 대표하는 수필이자, 헤이안시대의 마쿠라노소시와 함께 일본고전의 3대 수필



# 마쿠라노소시와 쓰레즈레쿠사

중세의 은자문학을 대표하는 수필

	枕草子	徒然草
작자	세이 쇼나곤	요시다 겐코
성립	헤이안 중기	가마쿠라 말기
작풍	감각적 · 인상적 · 왕조적	사색적 · 채관적 · 상고적
문체	간결하고 비약적인 문체	아문(雅文)과 한문을 혼용한 문체



# 오쿠노호소미치

마쓰오 바쇼



01

마쓰오 바쇼가 제자를 데리고 에도를 떠나 오가키에 이르기까지 약 150일 동안 6,000리의 길을 여행한 기록

02

와비, 사비, 호소미, 가루미의 정신이 담긴 문장표현 등이 돋보임.

03

한적한 것을 즐기며 고담한 분위기를 사랑한 바쇼의 마음이 사물의 깊은 뜻과 의미를 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시정으로 나타남.

05

# 모노가타리

---

01

다케토리모노가타리 竹取物語

02

겐지모노가타리 源氏物語



01

# 다케토리모노가타리

竹取物語



01

헤이안 초기를 대표하는 산문

02

현존하는 모노가타리 중 가장 오래 된 작품

03

1. 가쿠야히메의 출생과 성장과정
2. 다섯 명의 귀족과 대제의 구혼
3. 가쿠야히메의 승천



# 겐지모노가타리

源氏物語



01

11세기 초 무라사키 시키부에 의해 완성된,  
전 54첩으로 구성된 장편 역사 소설

02

자연이 인사에 조화하여 작품 전체에 '모노노아와레'의 정취가 흐름.

03

이후의 모노가타리와 역사소설, 와카, 요교쿠를 비롯한 근세의 문학에서 근대의 문학, 뿐만 아니라 예능, 음악, 회화 또는 장식, 문양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침.

06

소셜



01

# 뜨구름 (浮雲)

후타바테이 시메이 (二葉亭四迷)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일본 최초 언문 일치 소설이다. 사실주의를 일본에 처음 도입한 작가 쓰보우치와 부자관계를 맺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작가가 쓰보우치에게 영향을 받아 사실주의 묘사와 언문일치의 문체로 당시 문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근대 리얼리즘 소설 작품이다.

『뜨구름』은 그 시대의 일본 문명의 이면, 신구사상의 대립, 관존민비 등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신선한 기획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 문학사에도 길이남는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 소설은 직업도 사랑도 잃은 내성적인 청년의 고뇌를 문명 개화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그렸는데, 근대 지식인의 고뇌를 밀착해서 표현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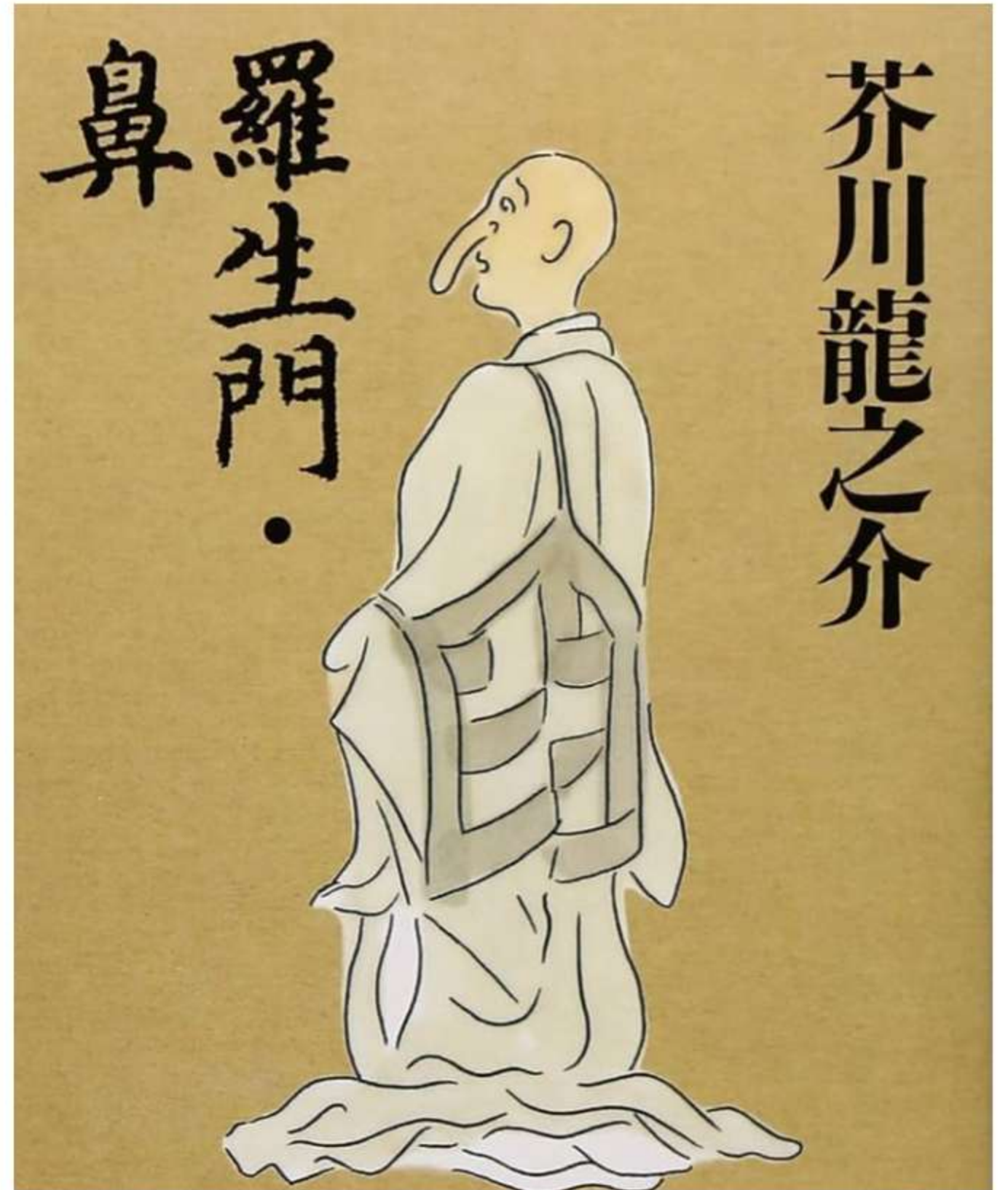


02

## 코 (鼻)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芥川龍之介)

「코」는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1916년에 『신사조(新思潮)』 창간호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곤자쿠 이야기집(今昔物語)』의 「이케노오(池尾) 젠신(禪珍) 나이구(内供)의 코 이야기」 및 『우지슈이 이야기(宇治拾遺物語)』의 「코가 긴 스님 이야기(鼻長き僧の事)」를 제재로 하고 있다. '사람의 행복을 고까워하고 불행에 기뻐한다'는 인간의 심리를 묘사한 작품으로 나츠메 소세키의 극찬을 받았다.





# 금색야차 (金色夜叉)

오자키 고요 (尾崎紅葉)

일본 메이지시대의 대표적 소설가 중 한사람이었던 오자키 고요의 대표작이다. 금색야차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13년으로 소설로는 <장한몽>이라는 이름으로, 연극으로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원작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금색야차가 당시 일본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그 빼어난 미문과 남녀의 사랑이라는 테마가 우선 매력적인 요소지만 그보다도 돈과 사랑을 대비시킨 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야차(夜叉)는 인도 신화 베다에 나오는 신적 존재이다. 추악하고 무섭게 생긴 사나운 귀신으로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치고 다닌다. 불교에서는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신인 팔부신장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금색야차는 돈 귀신, 즉 돈에 목숨을 거는 인간형을 말한다.





04

# 외과실 (外科室)

이즈미 교카 (泉鏡花)

『외과실』은 '나(私)'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나'의 퇴장으로 끝맺음된다. 이러한 설정은 '노(能)'의 서사기법과 유사하다. 등장인물의 구성도 와키역(わき役)의 '나', 시테(シテ)역의 '다카미네'와 '기후네 백작 부인', 쓰레(ツレ)역의 '백작' 등으로 '노'와 유사하다.



外科室・  
天守物語

泉鏡花

新潮文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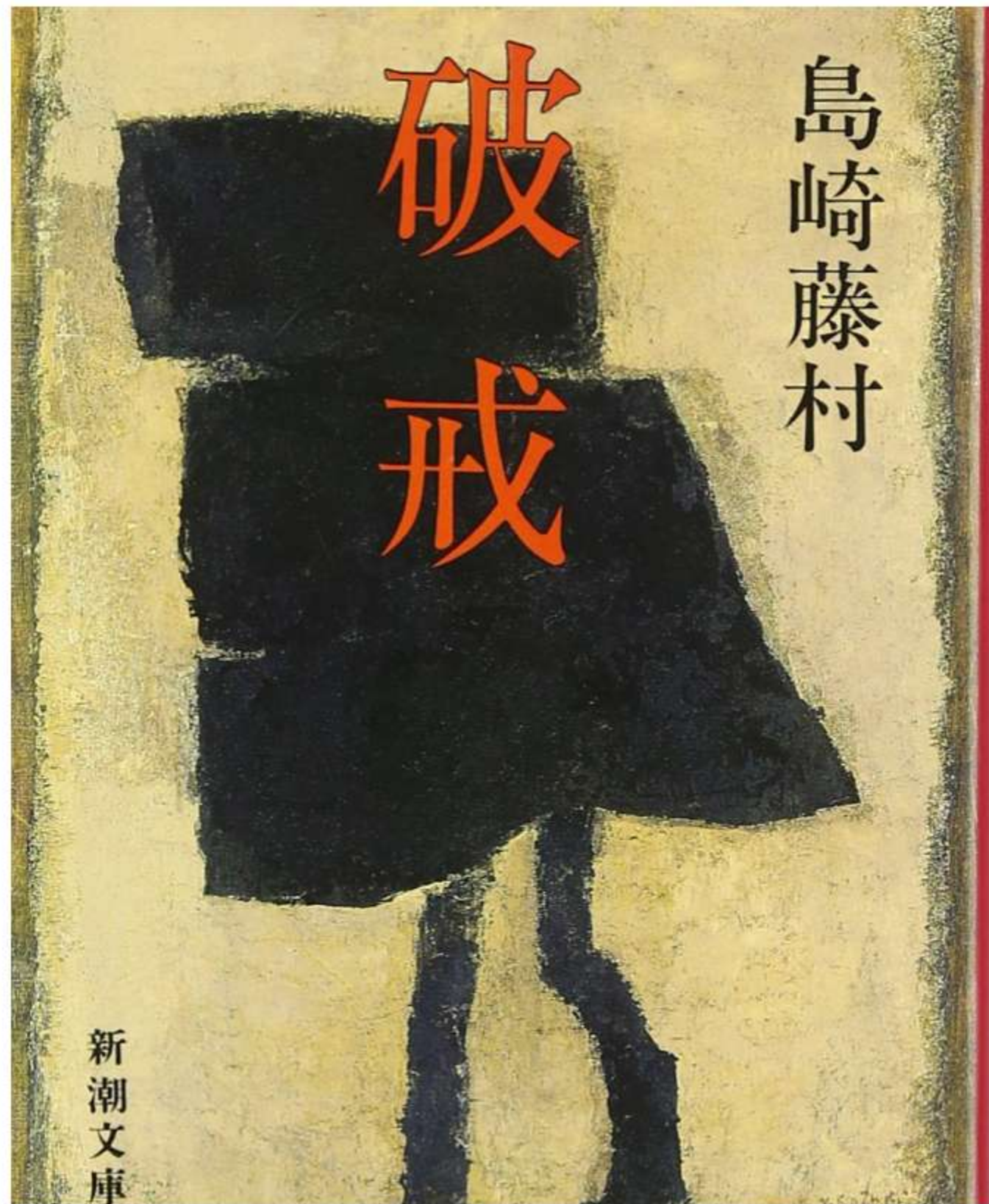


05

## 파계 (破戒)

시마자키 도손 (島崎藤村)

「문학계」의 동인이자 낭만적 서정시인 시마자키 도손은 메이지 30년대 들어 산문에 의한 새로운 표현방법의 모색을 시도한 끝에 『파계』를 발표하여 자연주의 대표작가로 변모하였다. 차별받는 부락 출신의 청년교사가 신분을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위선을 자각한 후 고백을 결심하기까지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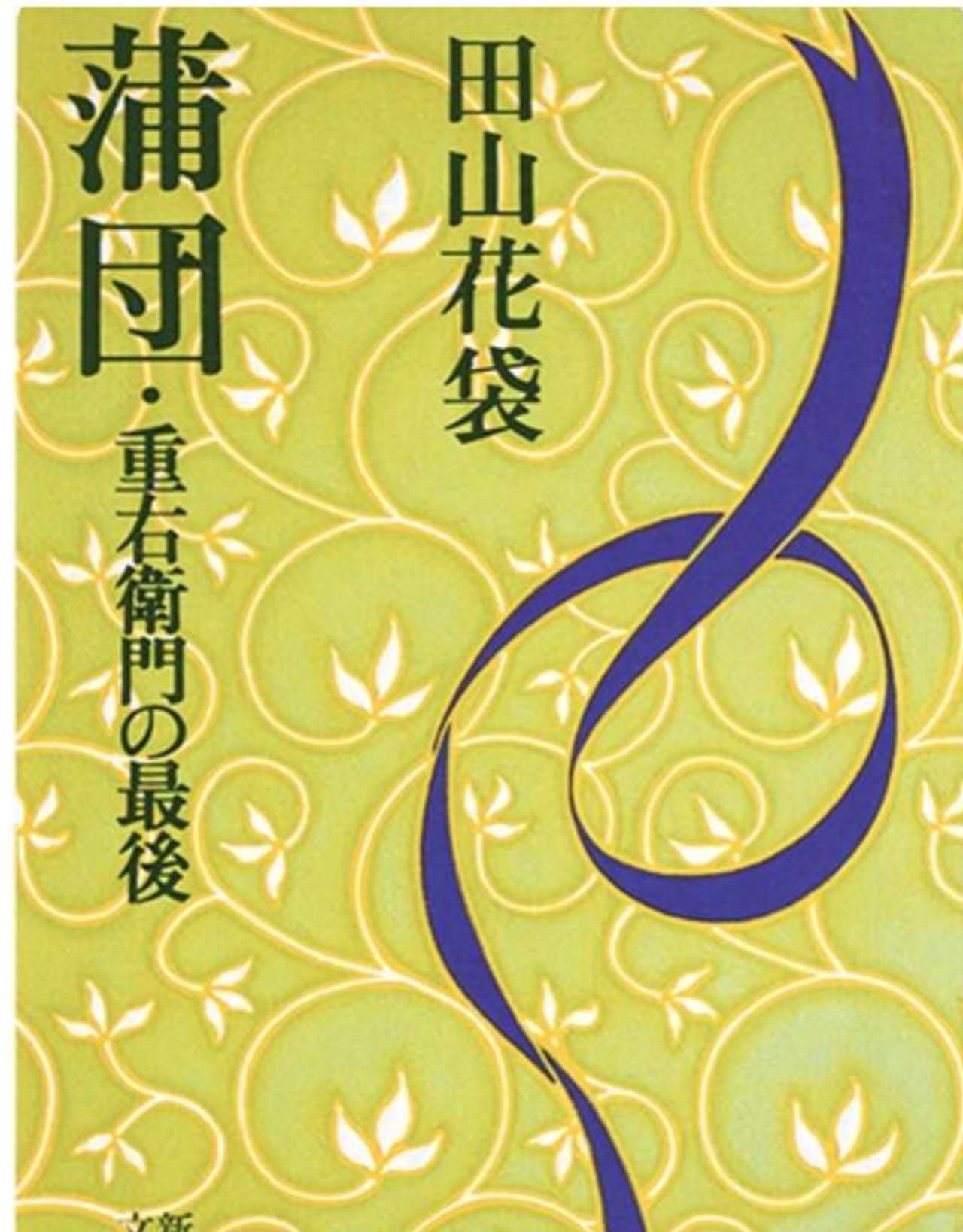


06

# 이불 (布団)

다야마 가타이 (田山花袋)

다야마 가타이가 시마자키 도손의 '파계'에 자극을 받아 발표한 소설이다.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하여 미모의 여제자에 대한 애정행각을 지나치게 폭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불』은 이후 자연주의 문학의 방향을 결정지은 작품으로 평가되어, 일본 자연주의의 기본적 창작태도인 사소설(私小説)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 「파계」와 「이불」의 특색 비교

	破戒	布團
작자	시마자키 도손	다야마 가타이
구상	천민문제로 고통받는 청년의 고뇌를 묘사	젊은 여성에 끌리는 중년남성의 고뇌를 묘사
창작동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에서 착상	젊은 여제자와의 실제적 체험고백
특징	사회적 · 허구적	고백적 · 사소설적
의의	자연주의 문학의 확립	자연주의문학의 사소설적으로의 전환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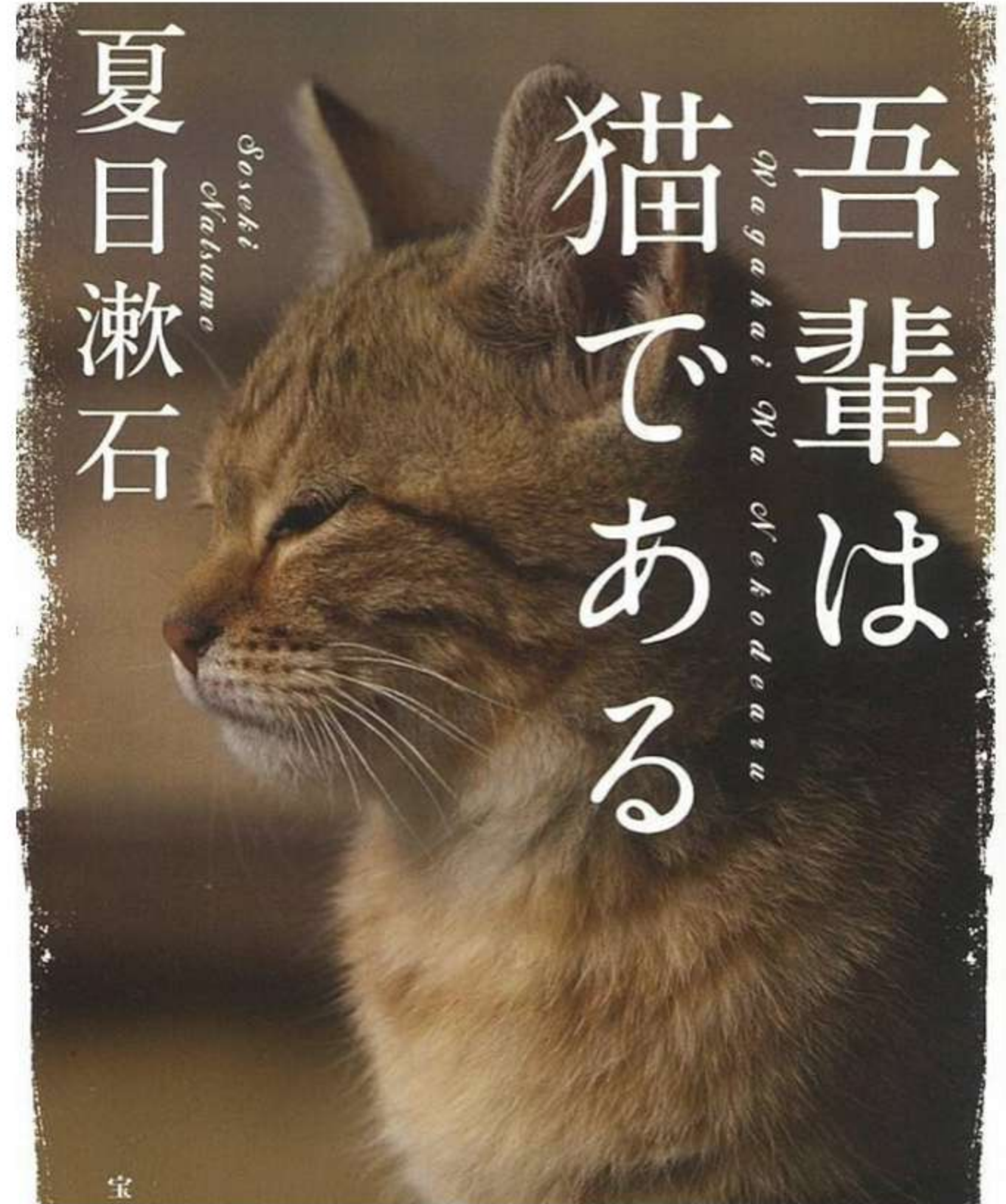
07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吾輩は猫である)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일본의 근대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의 장편 소설로,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로런스 스톤의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생애와 의견」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나는 고양이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吾輩は猫である。名前はまだ無い。どこで生れたかとうんを見当がつかぬ。)로 시작하는 이 작품의 첫 문구는 유명하다. 나쓰메 소세키는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1907년부터 일본의 권위 있는 신문인 <아사히 신문>의 전속 작가가 된다.

영어 교사인 구샤미(苦沙弥)의 집에서 길러지고 있는 고양이인 '이몸'(吾輩)의 시점에서, 주인인 구샤미 선생의 일가와, 구샤미의 집에 모이는 그의 친구들 및 문하생들의 인간 만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1905년에 <호토토기스>에 발표된 소세키의 데뷔작이다.





# 다카세부네 (高瀬舟)

모리 오가이 (森鷗外)

모리 오가이가 쓴 단편소설 『다카세부네』는 1916년 1월 문예지 <중앙공론>에 발표했다. '다카세부네'는 수심이 얇은 다카세 강을 지나는 바닥이 평평한 배를 일컫는다. 주로 교토에서 유형지가 있는 오사카로 수형인을 호송한다. 이 작품의 시대배경은 에도 막부 시대로 민중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굶주렸다. 어느날 다카세부네 도신 하네다 쇼베에는 동생을 죽인 젊은 살인범 기스케를 호송한다. 그런데 기스케는 호송되는 여느 죄인과는 다르게 매우 평안한 얼굴로 배에 앉아 사연을 얘기한다.



# 나츠메 소세키와 모리 오가이의 비교

서구유학을 경험한 이들은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관조하며 지성인다운 안목으로 인간과 사회를 포착하여 자아개발과 이상을 추구하였다.

	夏目漱石	森鷗外
태도	반자연주의, 여유파	반자연주의, 고답파
교양	영문학이 주류	독문학이 주류
주제	에고이즘, 축천법사	지·정의 화합, 무사적 윤리
활동범위	소설, 하이쿠, 평론	소설, 평론, 시가, 번역, 희곡



# 설국 (雪国)

가와바타 야스나리 (川端康成)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가 지은 장편 소설. 눈이 많은 고장을 배경으로, 가끔 번역만 하고 무위도식하는 지식인 시마무라(島村)와 청순하고 아름다운 온천장의 기생 고마코(駒子)의 슬픈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1948년에 발표하였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였다.

(国境の長いトンネルを抜けると雪国であった。)

소설의 첫 문장이 대단히 유명하다. 설국의 도입부는 일본문학 도입부의 정수라고도 불리는데, 시마무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간 묘사를 수 행의 간결체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여유롭고 푸근한 느낌을 주며, 설국이라는 작품의 배경을 독자들에게 감각적으로 주입시킨다. 특히 첫 문장인 '국경의~' 부분은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유명한 문장으로 각종 문장론 서적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며, 이 문장만 연구한 논문이 있을 정도이다.





10

# 사양 (斜陽)

다자이 오사무 (太宰治)

점점 몰락하는 귀족가문의 모습을 '지는 태양'(사양, 斜陽)에 비유한 제목으로 이런 몰락해가는 귀족을 뜻하는 사양족(斜陽族)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한자 사양의 뜻에 몰락이라는 의미를 추가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작품이다. 일본에는 '사양' 단어 자체로 쓰고, 한국에서는 주로 '사양세'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일본 아오모리현 고쇼가와라시에 있는 다자이 오사무 기념관의 이름도 사양관(斜陽館)이다.





# 태양의 계절 (太陽の季節)

이시하라 신타로 (石原慎太郎)

『태양의 계절』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1955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다. 같은해 열린 <제1회 문학계신인상>, 이듬해 열린 <제34회 아쿠타가와 상>을 받았다.

1956년에 영화화돼 인기를 얻었으며 제목을 따서 당시 향락적인 젊은이들을 비판을 담아 태양족이라 부르기도 했다. 2002년엔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졌지만 줄거리는 완전히 다르다.

단행본, 문고판을 합해 현재까지 발행 부수는 100만 부를 넘는다.

이시하라가 소년기를 보낸 가나가와현 즈시시 즈시 해안에는 <태양의 계절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이시하라의 자필이 들어간 기념비가 설립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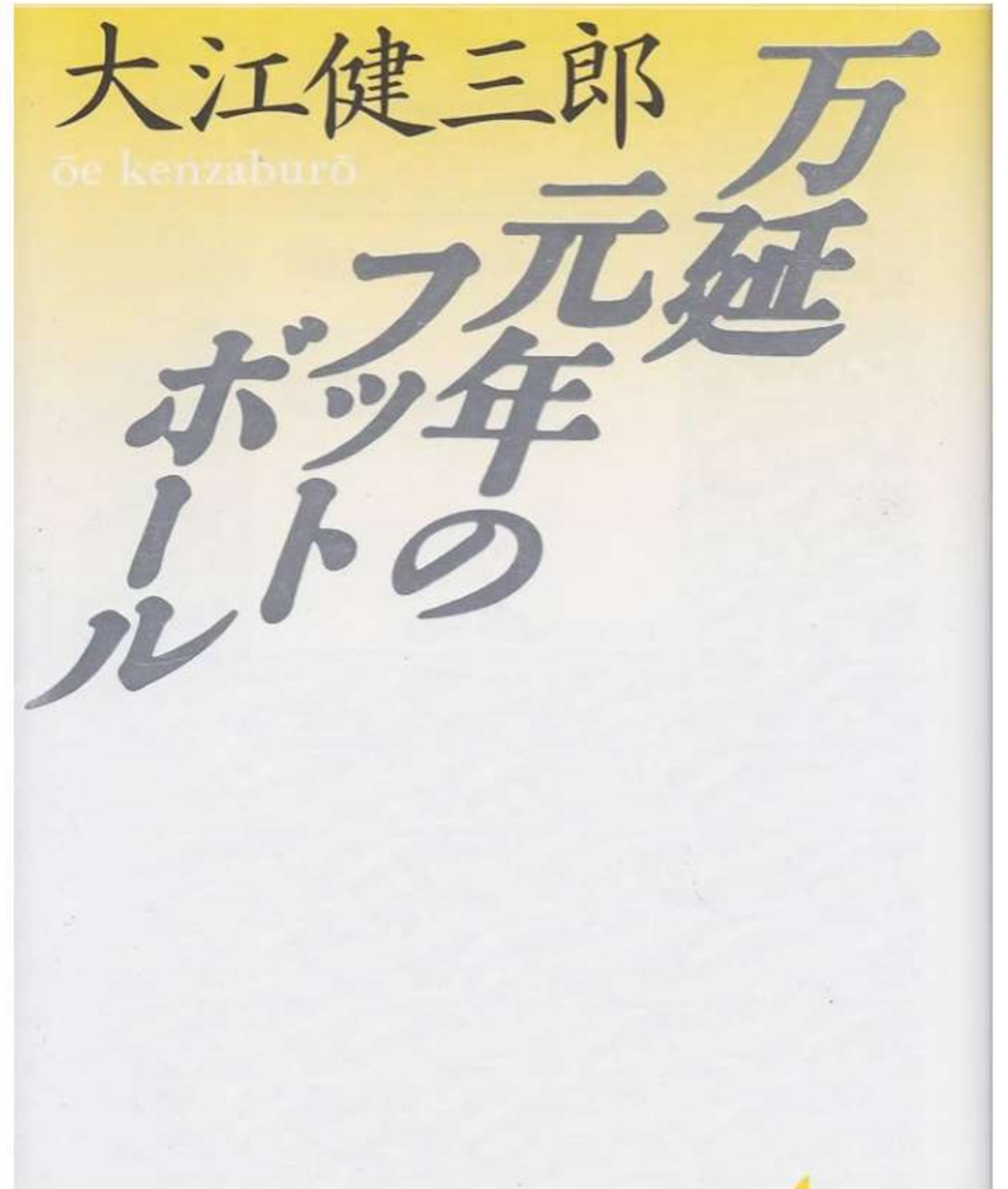


12

만엔 원년의 풋볼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오에 겐자부로 (大江健三郎)

『만엔 원년의 풋볼』은 일본의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이다. 1967년 1월부터 7월까지 고단샤에서 발행한 문학 잡지 《군조》에 연재되었고 같은 해 9월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오에 겐자부로는 1967년에 일본의 대표적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제3회 다니자키 준이치로상을 수상하게 된다. 영어권에서는 《침묵의 외침》(The Silent Cry)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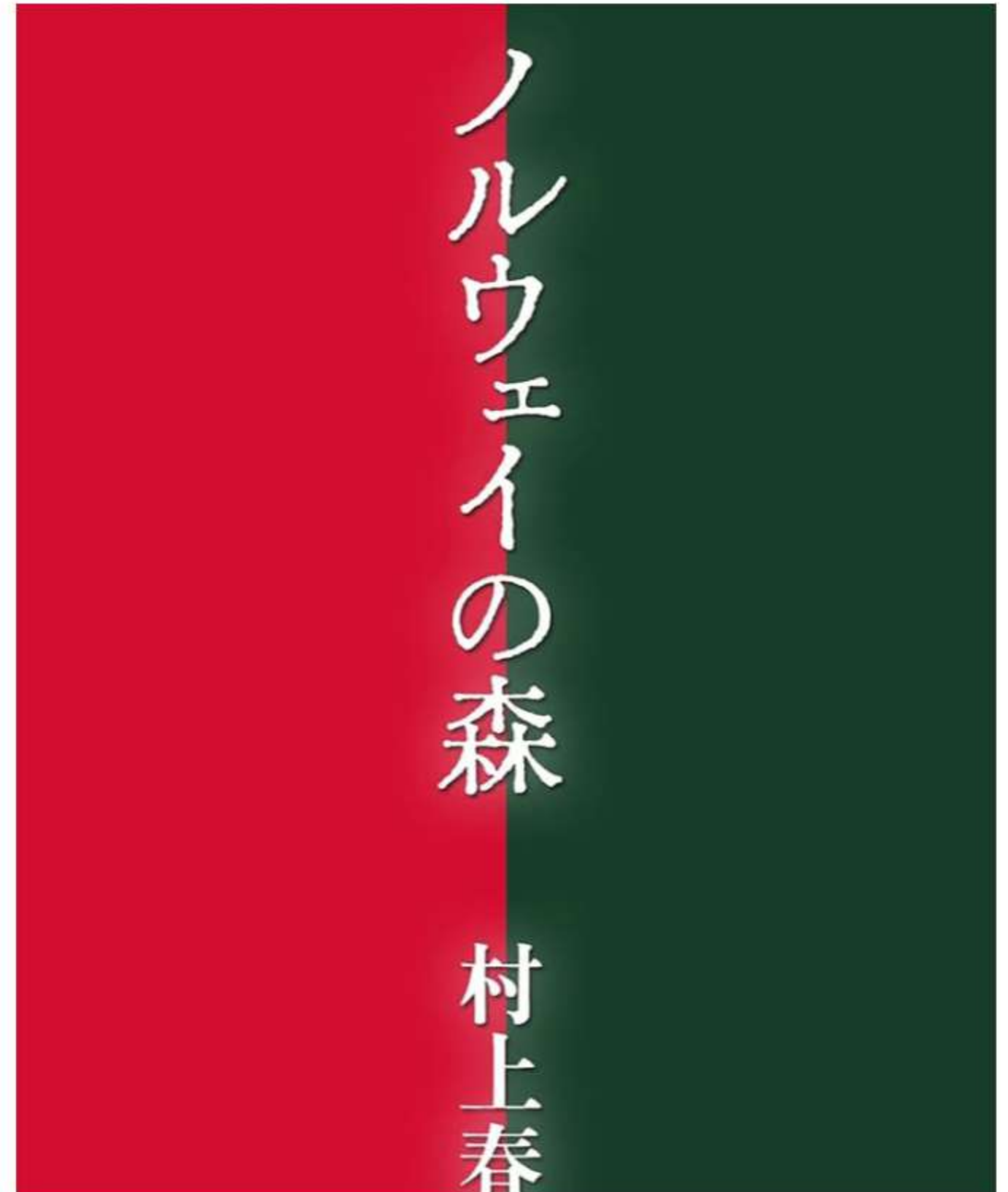
## 노르웨이의 숲 (ノルウェイの森)

무라카미 하루키 (村上春樹)

일본의 유명 대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1987년에 출간된 소설이며 하루키의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다.

하루키의 소설은 대체로 오컬트, 초현실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 작품은 드물게 현실적인 소설이다. 소설의 시대 배경은 1960년대 후반이다. 덕분에 비틀즈, 전공투 등 196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등장하는 단골 소재들이 이 작품에도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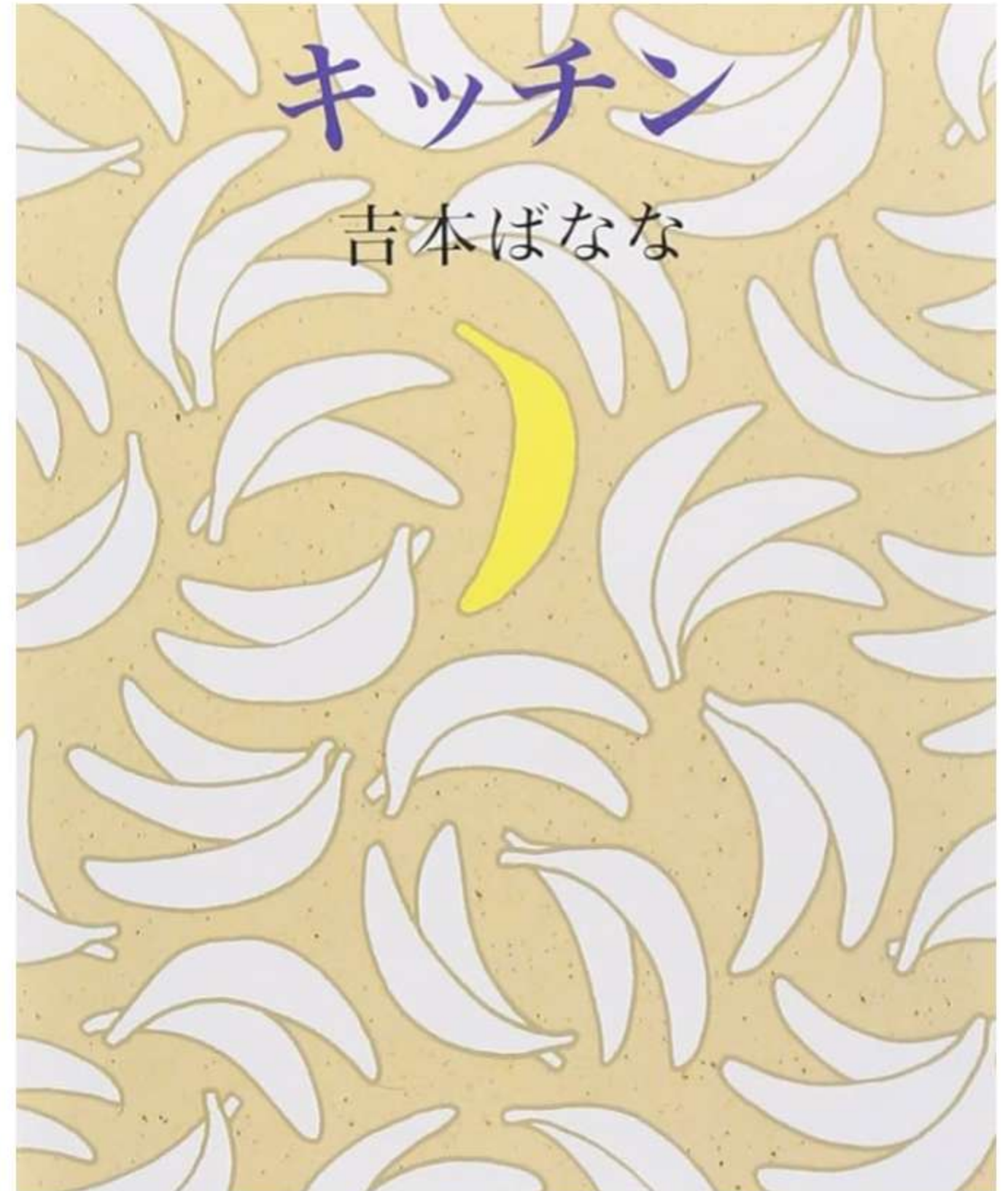
제와 별개로 여러 나라에서 제목이 크게 번안된 채 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노르웨이의 숲>으로 출간했으나 판매량이 부진했고, 후에 문학사상사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바꿔 재출간하여 대히트를 치게 되었다.



# 키친 (キッチン)

요시모토 바나나 (吉本ばなな)

『키친』은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88년 쓰여졌으며 바나나의 소설 데뷔작이다. <키친>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도 가장 명성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며 대략 20여 개의 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출간되었다. 작가가 소설을 쓰던 시절 문학계에 서구식의 스타일이 유행했지만, 바나나는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글을 썼고, 그 결과 소설 <키친>은 일본 현대문학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The Times나 The New Yorker 등의 신문사들도 <키친>을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감사합니다**